

평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고려돌곽흙무덤과 거기에서 알려진 수은의 용도에 대한 견해

전 영 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입니다.》

력사유적과 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으로서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떠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것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무덤유적들과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유물들도 당시의 력사와 문화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 글에서는 평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고려시기의 돌곽흙무덤과 거기에서 나온 수은의 용도를 통하여 고려시기 평양의 전통적인 지위와 당시 형벌종류의 하나인 사사형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먼저 평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고려돌곽흙무덤의 위치와 구조, 거기에서 나온 껌물 거리상태를 보기로 한다.

주체98(2009)년 7월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서는 돌곽흙무덤 1기가 발견되였다.

돌곽흙무덤은 고구려시기의 왕궁성이였던 안학궁성의 서문터에서 서남쪽으로 280m 정도 떨어진 높지 않은 구릉지대에서 발견되였다.

무덤은 건설공사과정에 알려진것으로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무덤무지는 이미 없어졌고 북쪽부분이 약간 파헤쳐져있었다.

진흙질땅의 지표면으로부터 1m정도 되는 깊이에서 정교하게 다듬은 판돌로 만든 돌곽이 나왔다.

돌곽의 건축방향은 남북방향이였다.

돌곽은 화강석판돌을 두께 5cm정도로 정교하게 다듬어 길이 175cm, 너비 80cm, 높이 63cm정도 되는 직6면체모양으로 조립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바닥에는 길이 175cm, 너비 80cm 되는 판돌 1장을 깔고 그우에 길이 175cm, 높이 53cm 되는 판돌을 각각 세워 동벽과 서벽을 만들었으며 두 벽사이에 너비 70cm, 높이 53cm 되는 판돌을 끼워 남벽과 북벽을 축조하였다. 돌곽의 윗면에는 길이 60cm, 너비 80cm정도 되는 3개의 판돌을 덮었다.

발굴당시 돌곽의 북쪽뚜껑돌이 제껴져있고 그 부분이 약간 파헤쳐져있었던것으로 보아 무덤의 이 부분이 이미전에 도굴당하였던것으로 추측된다.

무덤에서는 유물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고 북벽에서 77cm, 남벽에서 98cm 되는 바닥의 중심부분에서 35mL정도의 수은이 알려졌다. 도굴흔적이 없는 판바닥의 중심부분에서 알려진 수은은 무덤축조당시의것으로 보아진다.

현지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전에 돌곽의 북쪽부분에서 고려시기의 자기가 알려졌다고 한다.

평양에서 알려진 무덤들가운데서 이 무덤과 구조형식이 유사한 무덤들의 발굴자료를 보면 다음표와 같다.

평양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돌관 및 돌곽흙무덤들

No	유적명	길이(cm)	긴축방향	바닥상태	껴묻거리
1	삼석구역 호남리 미림철바위돌관무덤	?	동-서	?	없음
2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1호돌관무덤	112	동-서	들린바닥	돌단검1, 돌활촉1, 돌돈, 조롱박형단지조각
3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2호돌관무덤	130	남-북	?	없음
4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3호돌관무덤	150	동-서	들린바닥	없음
5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4호돌관무덤	135	동-서	들린바닥	없음
6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5호돌관무덤	130	?	?	없음
7	강동군 삼등리 외미골 1호돌관무덤	220	동-서	들린바닥	없음
8	강동군 삼등리 외미골 2호돌관무덤	200	동-서	들린바닥	없음
9	순안구역 신성동 돌곽흙무덤	180	동-서	작은 돌들을 깔았다.	비파형단검, 검자루맷추개돌, 청동거울, 돌활촉, 목긴단지
10	강남군 룡포리 돌곽흙무덤	150	남-북	?	창끝, 도끼, 자귀, 낫, 괄, 화분형단 지, 배부른단지, 회색단지, 바리 등

표에 서술된 평양에서 알려진 돌관무덤들과 돌곽흙무덤들은 모두 고대시기의것들이다.

표에서 보면 삼등리 외미골1호돌관무덤과 2호돌관무덤, 신성동돌곽흙무덤은 길이가 180~200cm정도 되는것으로서 바로펴묻기한 무덤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고대시기 돌관무덤들은 보통 길이가 130~150cm정도로써 굽혀묻기를 한것들이다. 다른 지역에서 알려진 고대돌관 및 돌곽흙무덤들의 자료를 놓고보아도 대체로 굽혀묻기를 한것들로서 사람의 키에 비해 무덤의 길이가 짧은것이 특징이다.

표에서 보면 남경2호돌관무덤과 룡포리돌곽흙무덤들만이 무덤의 긴축이 남북방향으로 놓여있고 이것들을 제외한 대부분 무덤들의 긴축은 동서방향으로 놓여있다.

고대시기 돌관무덤들과 돌곽흙무덤들의 구조는 긴 두벽을 세우고 그사이에 끝에서 약간 들어다가 짧은 벽을 축조한 《교》자형이 기본을 이룬다.

고대시기 무덤바닥은 벽체의 아래끝선보다 조금 올라온 들린 바닥으로 되어있다.

새로 발견된 돌곽흙무덤은 길이가 175cm정도로써 바로펴묻기한것이며 긴축이 남북방향으로 놓여있다는 점, 바닥돌을 먼저 깔고 그우에 장방형의 벽체를 축조하였다는 점

에서 고대시기의 돌관 및 돌곽흙무덤들의 일반적인 구조형식과 차이난다.

돌곽흙무덤은 고대시기와 고려시기에 쓰인 무덤종류이다.

새로 발견된 돌곽흙무덤이 고대시기의 돌관 및 돌곽흙무덤들과 구조형식에서 현저히 차이난다는 점을 놓고볼 때 이 무덤은 고려시기에 축조된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이미전에 여기에서 고려자기가 나왔다고 하는것을 보면 이 무덤이 고대시기의 돌곽흙무덤이 아니라 고려시기의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금까지 평양에서 고조선시기의 고인돌무덤이나 고구려시기의 돌각담무덤, 돌칸흙무덤들은 많이 알려졌지만 고려시기의 돌곽흙무덤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무덤은 평양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고려시기의 돌곽흙무덤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무덤에서 이례적인것의 하나는 무덤곽의 매 벽면축조에 얇게 가공한 화강석판돌을 1장씩 쓴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기의 무덤자료를 보면 개성일대의 왕릉급돌칸흙무덤들은 레외없이 무덤의 외부시설과 내부시설을 화강석을 가공하여 축조하였고 장풍군 고읍리 왕릉골에 있는 고읍리1호, 2호돌곽흙무덤과 경기도 강화군의 망산돌곽흙무덤, 경상북도 안동시 룡전면 서삼동돌곽흙무덤들의 축조에 화강석을 리용하였다. 화강석을 가공하여 만든 무덤들은 다 무덤외부시설까지 갖추어져있는 급수가 높은 무덤들이였다.

이것은 고려시기에 급수가 매우 높은 무덤들에만 화강석을 썼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고려돌곽흙무덤들의 판돌두께를 보면 강원도 철원군 내문리돌곽흙무덤의 돌두께는 15cm, 황해북도 장풍군 고읍리2호돌곽흙무덤의 돌두께는 15cm, 평안남도 성천군 군자리돌곽흙무덤의 돌두께는 10cm,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2호돌곽흙무덤의 돌두께는 12cm로서 보통 10~15cm정도이다. 그런데 이 돌곽흙무덤의 돌두께는 5cm로서 매우 정교하게 가공한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시기에 급수가 높은 무덤들에만 화강석이 쓰였다는 사실과 화강석이 평양에서 근 100여리 떨어진 룡강, 온천 등지에서 생산된다는것 그리고 매우 얇게 가공한 판돌을 리용하였다는것을 고려하여보면 무덤의 피장자가 상당한 정도로 급수가 높은 사람이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다음으로 무덤에서 나온 수은의 용도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이 무덤의 돌곽안에서 수은이 발견된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수은은 독성분을 포함하고있는 중금속이다. 지각에 $2 \times 10^{-5}\%$ 정도로 적게 포함되어 있으나 희유원소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은이 섬아연광속에 진사(HgS)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자연상태에서 순수한 수은이 알려질 가능성은 얼마 없다.

고대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수은이 생산되었으며 금생산과 금도금에 리용되였다.

금과 수은이 접촉하면 죽과 같은 상태의 금아말감이 얻어진다. 금아말감에서 금을 얻기 위하여서는 먼저 촘촘한 천이나 양가죽으로 금아말감을 싸고 찐다. 그러면 액체수은은 빠져나가고 금이 20~50%정도 들어있는 금아말감을 얻게 된다. 다음에 이것을 350~400℃의 온도에서 서서히 가열한다. 그러면 나머지수은은 증발하고 순도가 높은 금이 얻어진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고대시기부터 수은을 리용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금을 생산하였다.

고려시기에도 수은을 포함하고있는 주요광물인 진사가 자기생산에서 주요원료로 널리 쓰였으며 다른 나라에서 고려왕조에 수은을 선물로 바친례*가 있는것을 보면 이 시기에 수은이 리용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사》권6 정종조에는 《十一月丙寅大食國客商保那蓋等來獻水銀龍齒占城香沒藥蘇木等物》(《(정종6년) 11월에 대식국의 상인들이 수은, 룡치, 점성향, 몰약, 대소목 등의 선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수은은 독성분이 강하고 쉽게 중독되기때문에 매우 위험한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유하고있는 물건에는 들어있지 않다.

이 무덤에서 수은이 발견된 위치를 보면 이미전에 도굴된 흔적이 없는 북벽에서 77cm, 남벽에서 98cm 되는 관바닥의 중심부분으로서 주검의 배부분에 해당한 곳이다.

주검의 배부위에 해당한 무덤곽바닥에서 무덤축조당시의것으로 보아지는 35mL정도의 적지 않은 수은이 발견된것은 이것이 무덤의 피장자의 배속에 들어있던것이라고 추측된다. 이것은 피장자가 수은을 먹고 죽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여준다.

무덤의 구조형식으로 볼 때 높은 급의 인물의 무덤에서 수은이 나왔다는것은 중세 형벌종류의 하나인 사사형과 련관시켜 볼수도 있을것이다.

고려시기의 형벌종류에는 기본형벌인 사형(참형, 교형), 류형, 도형, 장형, 태형과 그 밖에 사사형, 룡지처참형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사사형은 죄를 진자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는 형벌이었다.

사사란 임금의 《독약을 하사한다.》는 뜻으로서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주로 왕족과 특권봉건지배계급들에게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하여 적용된 형벌이었다.

《고려사》에는 《호은태자는 그 이름이 사기에 전하지 않았다. 혹은 그를 동양군이라고 불렀는데 성격이 음험하고 란폭하였으며 악당들과 사귀면서 슬며시 반역을 꾸미려는 뜻을 품고있었으므로 광종이 사약을 주어 자결하게 하였다.》,*1 《...대신들이 죄가 있으면 모두다 사사하였으며 살륙과 모욕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아래사람을 레우하였던것이다.》*2라고 기록되어있다.

*1 《고려사》권90 련전 호은태자

*2 《고려사》권118 련전 조준

그리고 그릇된 정사를 하여 폐위된 국왕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사형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고려사》에는 《... 강조가 파견한 상약직장 김광보가 목종에게 독약을 주었으나 거절하고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있다.

* 《고려사》권127 련전 강조

《고려사》의 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고려봉건통치배들은 그들을 살려두었다가는 후환이 두려워 죽여야 하는 경우 특권족속들의 《권위》보장과 민심을 고려하여 집이나 또는 류형지로 가는 도중에 그리고 류형지에 사람을 파견하여 약을 먹게 하는 식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고려시기 사사형에 사용하던 약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사사형을 설명하면서 사사형에 사용하던 약에 대하여 밝힌 것이 있다. 그에 의하면 조선봉건왕조시기 사사형에 사용한 독약은 주로 중국에서 사용하던 짐독이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비소, 금, 수은, 생금, 생청, 부자 등과 계의 알을 조제하여 썼다고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 돌곽흙무덤에서 나온 수은은 고려시기에 사사형이 존재하였으며 독약으로 수은을 리용하였다는것을 실증하여주는 물질적자료라고 말할수 있다.

이 무덤은 평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고려시기의 돌곽흙무덤으로서 당시 평양의 역사적지위와 형벌제도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된다.

평양에서 고려시기의 무덤이 처음으로 알려진것은 당시 평양이 중시되었던 역사적사실을 보여주는 물질적자료의 하나로 된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태가 묻힌 고조선의 수도 평양을 조선민족의 발상지로 간주하였으며 그 전통적지위에 의거하여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여왔다.

평양을 중시하고 평양의 전통적지위에 토대하여 민족의 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역사의 이러한 흐름은 고조선의 뒤를 이은 동방의 천년강국-고구려에로 련면히 이어지면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 21년조에서는 고구려가 247년에 평양에 성을 쌓고 백성들과 종묘, 사직을 옮긴 사실을 전하면서 평양이 선인왕검 즉 단군이 살던 곳이고 단군의 옛 도읍지였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고구려는 오늘의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 소문봉기슭의 넓은 부지에 큰 규모의 궁궐을 짓고 427년에 자기의 수도를 국내성(오늘의 중국 길림성 집안)으로부터 평양으로 정식 옮기었다.

이러한 역사적사실은 고구려의 평양천도가 단순한 수도이동이 아니라 단군조선이래 수천년간 고조선의 수도로 번성한 평양의 전통적지위를 살려 강대한 통일국가를 일떠세우려는 고구려사람들의 의지의 발현이었다.

고구려의 계승국인 고려 역시 강대한 고조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의 전통적지위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하여 국가성립초기부터 서경(평양)중시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서경천도를 여러차례 시도하였던것이다.

10세기초에 태봉국을 뒤집어엎고 새로 등장한 고려는 성립초기부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깃들어있는 평양을 중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썼다.

고려는 건국초기부터 개경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구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서쪽 수도-서경이라고 부르면서 서경중시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다.

고려가 서경중시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운 목적은 서경(평양)에 수도를 옮긴 다음 그 전통적지위에 의거하여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일떠세우려는데 있었다.

고려의 서경중시와 서경천도를 보여주는 역사적사실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건이 1135-1136년에 일어난 묘청의 정변이며 그 물질적근거가 바로 평양에 건설되었던 대화궁이다.

고려시기 평양이 중시되었던 역사적사실에 비해볼 때 지금까지 평양에서 이 시기의 무덤유적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무덤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어떠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보여주는 주요한 유적의 하나로서 수도나 큰 도시와 그 주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무덤유적들이 알려지고있다.

이번에 고려시기 높은 급의 무덤이 새롭게 알려짐으로써 당시 평양이 중시되었던 역사적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물질적자료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 무덤안에서 발견된 수은은 고려시기 사사형의 존재유무와 거기에 쓰인 독약의 종류를 정확히 밝힐수 있게 한다.

무덤곽안에서 알려진 수은은 고려시기에 사사형이 존재하였으며 수은이 독약으로 이용되었다는것을 처음으로 증명하여준 귀중한 물질적자료이다.

이처럼 평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고려돌곽흙무덤은 평양의 전통적인 지위와 당시의 형벌제도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된다.

실마리어 사사형, 수은